

시설채소 화분매개곤충 사용량 급증

2011년 48.4%에서 지난해 67.2%로 ↑

아열대·특용작물서도 사용량 늘어나

98.8%가 '만족' 장점으로 생산성 향상 꼽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기후변화 등으로 화분매개곤충의 개체 수는 줄었으나 농작물에서 사용량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화분매개체를 이용한 작목 수는 2011년 19개에서 지난해 27개로 늘어났으며, 사용 봉군 수는 2011년 34.9만 봉군에서 지난해 61.9만 봉군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시설채소에서 화분매개곤충 이용률과 봉군(벌무리) 수가 크게 늘어 2011년 48.4%였던 이용률은 2016년 59.6%, 지난해는 67.2%로 증가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특용

작물에서 화분매개곤충의 사용량이 늘었다. 아열대 작물인 망고의 경우, 사용 봉군 수가 2016년 565봉군에서 지난해 820봉군으로 약 1.5배 증가했으며, 특용작물인 구기자는 2016년 292봉군에서 2020년 843봉군으로 2.9배 증가했다.

화분매개곤충으로는 꿀벌, 뒤영벌, 빨가위벌류를 주로 사용했으며, 망고와 씨받기용 인파에서는 파리류를 화분매개곤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27개 작목에서 화분매개곤충 종류별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꿀벌이 67.1%, 뒤영벌이 29.4%, 꿀벌과 뒤영벌, 빨가

위벌류 혼합 사용이 3.4%, 파리류가 0.1%를 차지했다.

또한 서식지 감소 등으로 주로 채집에 의존해 사용하는 빨가위벌류 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분매개곤충을 사용한 723 농가 중 98.3%가 앞으로도 화분매개곤충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답해 화분매개곤충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분매개곤충 이용 시 장점으로 생산성 향상(27.5%), 품질 향상(27.0%), 노동력 절감(26.7%) 등을 꼽았다.

한편 전 세계 작물 79%가 화분매개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 50년간 화분매개체를 이용한 작물생산이 3배 늘었다. 화분매개체가 줄어들면 전 세계 식량과 바이오연료 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할 경우, 수정률

이 높아지고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며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화분매개곤충 사용 확대를 위해 ▲뒤영벌 연중 대량생산기술 개발로 보급 가격 58% 이상 절감 ▲부피 가격을 줄여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꿀벌 화분매개전용 벌통 개발, 화분매개용 꿀벌 표준사업법 확립 ▲빨가위벌 실내사육 기반 마련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임병생태과 이민영 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작물에 맞는 화분매개용 벌의 표준 사용 기술을 개발해 화분매개용 벌 시장 확대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화분매개곤충 꿀벌로 수출용 대과형 딸기 농사를 짓는 한 농업인은 "딸기 수분에 꿀벌을 사용해 기형과율이 줄고 생산량이 늘어 큰 도움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계속 꿀벌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온라인 교육환경 한계 뛰어넘는 '새로운 경험'

농진청, 신규 지도사 27기 입교식 오늘 가상공간서 메타버스 활용 아바타 소통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신규 지도사 27기 입교식'을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활동이 이뤄지는 가상의 세계를 일컫는다.

농촌진흥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행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를 이용해 신규 지도사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메타버스 입교식에는 지방 농촌진흥청 기관 신규 지도사 70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가상 분신)를 만들어 이모티콘(그림말)과 음성 마이크를 이용해 실시간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게 된다.

행사는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의 격려사 동영상 시청에 이어 기념 촬영, 신규 지도사 우수 UCC(순수제작물) 상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최상호 센터장은 "신규 지도사들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 체력과 미래농업의 방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메타버스 입교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규 지도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세화 신규 지도사(경북 고령군)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나만의 개성을 나타낸 아바타로 입교식을 한다고 생각하니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다"라며 "현장에서 경험한 농민들에게 메타버스를 활용한 지도사 교육을 시도해 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미국 농식품 공장 찾은 김춘진 aT 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농심 이메리카 렌초쿠가용가 공장과 한국 농식품 수입·유통비이어서인 울테리(Wooltari) USA를 방문하여 농수산식품의 생산, 물류 시설 등 수출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김 사장은 한국농식품의 미 주류(mainstream) 및 e-커머스시장 진출 동향에 대해 경험하고, K-Food 북 확대와 지지체와 연계한 직거래 수출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기업에 새만금 투자환경 소개

새만금개발청, 주한미국상의 주최 '지속가능 세미나' 참석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지난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지속 가능한 세미나(AMCHAM Sustainability Seminar 2021)'에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철학)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새만금의 핵심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에머슨 애플, 노벨리스, 디우케이갈 등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와 다수의 글로벌 기업, 관계기관 관계자 등 25여 명이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세미나에서 그린성장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의 핵심사업의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에너지 생산·연계'와 RE100이 실현되는 '스마트 그린산단', 탄소제로 도시를 지향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계획 등을 소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들은 RE100기반의 스마트그린 산단과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협력지구), 다양한 혜택이 제공

되는 미래형 자동차클러스터(협력지구) 구축 상황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에너지 산업에서 ESG와 연계할 수 있는 경영전략(에머슨), 법적 쟁점과 기업의 대응전략(법무법인 율촌) 등 기업이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제시와 함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세계적으로 기업의 ESG경영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은 환경과 경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그린에너지와 탄소제로 신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부동산 투자신탁' 활용 투자 활성화

새만금개발청, 리츠협회 등과 협력사업 발굴 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준)와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을 활용한 새만금 투자활성화 전략과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리츠(부동산 투자신탁)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특정 사업 또는 부동산 매입·개발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한국리츠협회는 리츠산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

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 수변도시 등 공공주도 매립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연계한 개발투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개발 리츠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와 물류 시설 등의 양극(선도) 시설을 전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도시 개발과 관련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정책적 제언과 협력사업 발굴, 인적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탬 예정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의 정책형 리츠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회사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이석재 차장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리츠를 새만금에 적용해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은 "본 계획에 따른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개발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리츠를 접목한 사업 모델 발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리츠협회 정병준 회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새만금 사업과 리츠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정책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완주군 이서청년공간 조성비 2,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역상생 아이디어 공모 상금 쾌척

전기안전공사, 완주군에 이서청년공간 조성비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완주군(군수 박성일) 이서청년공간 조성비 2,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27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기탁금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열린소통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열석현 과장이 분사 공모사업인 '지역상생 아이디어 제안'에 참여해 받은 상금 전액을 쾌척한 것으로 의미를 더했다.

황 과장은 "완주 지역청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서청년거점공간은 지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공간기획단'을 구성해 공간의 기획부터 운영방안 수립까지 전체를 꾸리고 있다.

성금은 완주군 1111사회소통기금에 기부돼 오는 9월 이서청년거점공간 5층에 개소할 이서청년거점공간 플래너로 조성돼 쓰일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청년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이 주인인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통함으로써 의미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 혁신도시의 대표기관으로 지난 2017~2020년 4년간 도시공동체 사업에 3500만원을 기부해 공동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내 청년 역량 강화와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며 안 수급까지 전체를 꾸리고 있다. /완주=이중복기자

eaT 식재료 인증정보 확인 가속화... 안전성 관리 강화

aT, HACCP인증원과 체결한 협약 후속 조치

HACCP인증정보, eaT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에서 운영 중인 단체급식조달시스템(eaT)의 식재료 인증정보 확인이 한층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등 안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 공사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 원장 조기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eaT와 HACCP인증정보의 실시간 연계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연계를 2만4,000여개소의 HACCP인증정보를 eaT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계약 시마다 이루어진 식재료 공급업체의 인증서 사본 제출, 확인 등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특히, 실시간 정보연계로 높아진 인

증정보 신뢰도는 eaT를 통해 음식 식재료를 납품받는 단체급식 수요기관에게도 식재료 안전성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사는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식품위생 유관기관들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식품안전망을 연계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10년간 단체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체급식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지속가능 농업·농촌 발전 정책간담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지난 27일 전북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정운천 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정착지업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상향 및 정례화 ▲농축산업 상공예기 존 현실화 ▲공익지불제 대상에 축산 농가 포함 ▲고형사탕 기부금 제도 도입 ▲축협 복수조합원 제도 도입 ▲의 국민 근로자 거주시설 관련 법령 개선 ▲국방부 군 급식정책 개선 관련 재검토 ▲농신보 기금 정부출연 확대 ▲RF 부산물 왕겨·미강 이용 절차 간소화 ▲낙농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지원금 확대 등 10가지 정책을 건의하고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정책협동으로 농업·농촌 발전에 힘쓰시는 의원님과 조합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농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뜻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농축산업의 대변자로서 농업·농촌의 발전과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메타버스를 활용한 농촌진흥청 신규지도사 입교식 배경화면.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